

국민의당 예산안 타결 캐스팅보트 ‘위력’

거대 양당 압박 협상 숨통 틔워

KTX무안경유 실리도 챙겨

한국당 등 “밀실야합” 비난

새해 예산안이 지난 4일 극적 타결된 데는 원내 제 3당인 국민의당 캐스팅보트가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예산안 합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중간지점을 겨냥한 적절한 대안제시로 협상의 숨통을 여는가 하면, 과반이 필요한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121석)과 한국당(99석) 양측을 압박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호평이 적지 않다. 40석의 의석을 지녔대상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선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광주전남 속원사업 해결과 예산 반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다수다.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함께한 호남선 KTX 공동정책협의회가 호남 속원사업 해소 및 예산 반영 사례의 대표 케이스다. 당시 국민의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3일 남겨두고 민주당과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호남선KTX 2단계 사업에 무안 공항을 경유하는 데 전격합의했다. 우원식·김동철 양당 원내대표는 관련 예산안도 최대한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당이 뜻을 모으자 바로 다음날인 31일 정부는 호남선 KTX 무안공항 경유를 공식, 확정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의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물론 법안 처리에서 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구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국민의당보다 3배나 많은 의석수를 가졌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국민의당의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 힘든 처지고 국민의당이 이를 적절하게 공략했다는 것이다.

예산안 막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화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민주당의 공감을 얻어낸 것도 캐스팅보트 효과다.

지난 4일 예산안 논의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간 조찬회동 자리에서 두 대표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살펴보면 국민의당이 제시한 절충안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도 국민의당으로선 고무적이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틀만 나면 ‘양 극단에 치우친 거대 양당의 폐해

를 줄이는 선도 정당이 되겠다’고 외쳤는데,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과 정책 및 정치현안 관련 공조체제를 구축한데 대해 강한 반발과 우려를 각각 표시했다.

한국당은 5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막중한 책임인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

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 받는 밀실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타인지 “개헌, 선거구제개편, 지방자치법 개정, 공수처법 처리는 어느 당이라도 공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예산안을 별미로 한 야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국민 앞에 뚜렷한 방법, 시대 앞에 당당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해 나가자. 내용 뿐 아니라 형식까지도 당당하게 논의를 해 나가자”며 반발 대신 당부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권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원전도 단층 조사 대상 포함

국회 법사위 의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권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오른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권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권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단층 조사 대상에 원자로 등 원전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현행에는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경주지진 발생 이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법사위의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설치 법안도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 정부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법안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명길 의원직 상실…국민의당 침통

국민의당은 5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침통함과 착잡함으로 가득한 분위기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종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의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

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당내에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은 한층 무거운 분위기다. 특히 안 대표의 경우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돕던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당내 입지와 통합 논의 동력을 일정부분 잃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다. /김형호기자 khk@

홍준표 “MB 수사는 망나니 칼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 “서정원·최경환 의원 두 분은 자연 소멸 절차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두 의원의 제명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회의원들한테 동료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또 적폐청산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힘의가 있으면 한번 불러서 조사하시라”며 “망나니 칼춤을 추는

데 막을 방법이 어딴겠다. 수사를 막을 생각도, 방법도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당의 정체성과 관련, “반북우파 정당인가”라는 질문에는 “한국당은 반북(反北)이 아니다. 북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북은 통일의 대상이다. 한국당은 그냥 보수우파 정당이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선제타격에도 예방전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벌써부터 ‘빼적’

정부 예산안 정반대 평가

정책연대협의체를 구성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5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안을 놓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면서 향후 양당의 연대 전망을 어둡게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앞으로 선거연대나 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민의당은 예산안 협상 결과에 만족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우리가 주도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 우선, 바른정당은 3당의 예산안 합의문에 ‘반대 당론’을 정했

다. 또 유승민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렀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곤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에 반대했지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고충이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해명한 뒤 “여러 정책 현안들이 있기에 예산정국이 끝나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률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시점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인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서는 이번 불협화음을 두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이 애초 잘못된 일이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